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11. 20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1/13~11/17)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무디스의 미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소식 전해지며 안전자산 선호 분위 기 속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미 10월 CPI 발표 앞두고 경계감 확대된 가운데 상승세 지속
- 중반 들어, 미 물가가 큰 폭 둔화되면서 시장 내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자 1,300원선 하회하는 등 급락세 시현
- 후반, 예상보다 완만하게 둔화된 미 소매판매 지표와 달러 지지력에도 미 연방 정부 섣다운 우려 완화 및 역외 룬스탑 물량 유입에 재차 하락 전환. 주 후반, 미 고용 둔화 조짐과 연준 긴축 중단 전망 속 저점 인식에 따른 수입업체 결제수 요 유입에 하단 지지되는 가운데 1,290원대 중반 마감

달러/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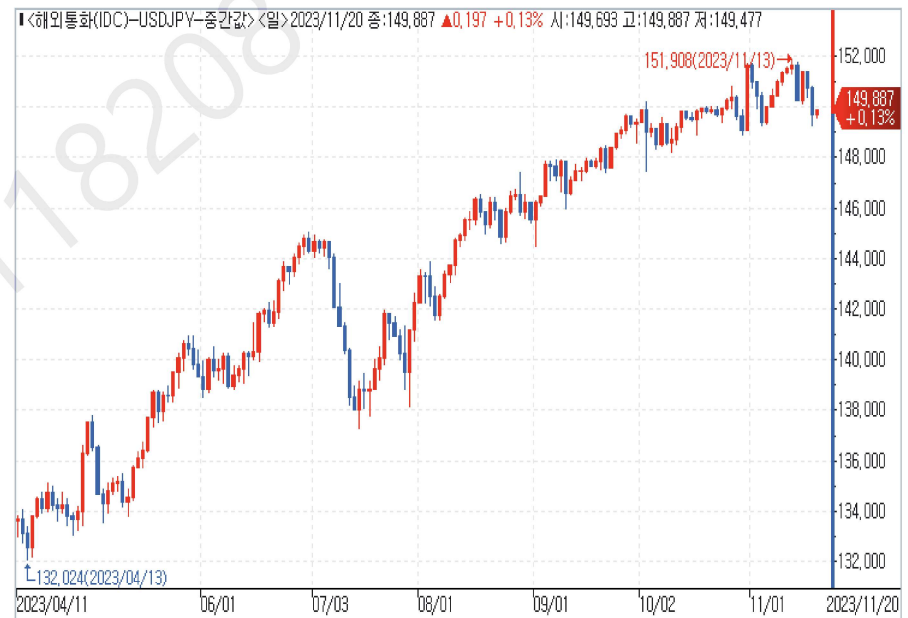
- 최근 미국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지수 하락과 주간실업보험 청구건수 상승 등 고용시장 냉각 분위기 등이 미국채 수익률 하락과 달러 약세를 견인한데 영향 등에 따라 원화는 소폭 강세 흐름을 나타낼 전망
- 여기에, 수출업체 등의 추격 달러 매도 강화 흐름 등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판단
- 하지만, 중국 통화당국의 금리인하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침체 우려 부각이 탄력 받을 수 있는 측면과 여전한 연준의 매파 성향 및 수급상 수입업체 결제수요 유입 등은 하단을 지지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18.0	1,330.2	1,290.0	1,296.9	-21.1

예상거래범위
1,290원 ~ 1,310원



엔·유로화 동향 (11/13~11/17)



유로화 동향

- 주초, 미 신용등급 전망 강등에도 영향 제한된 가운데 미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하락세 이어질 가능성에 소폭 강세 출발. 이어, 미 CPI 둔화된 반면 독일 경기기대지수는 개선되면서 양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로화는 큰 폭의 강세 시현
- 중반, 유로존 9월 산업생산 감소세 이어지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자극한 영향으로 약세 전환
- 후반 들어, 미 실업수당 청구 감소 등 고용시장 냉각 시그널에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 지속되는 측면이 유로화 강세를 견인. 이어 주 후반, ECB 관계자가 유가 급등 시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 강조함에 따라 달러 대비 강세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685	1.0909	1.0832	1.0909	-0.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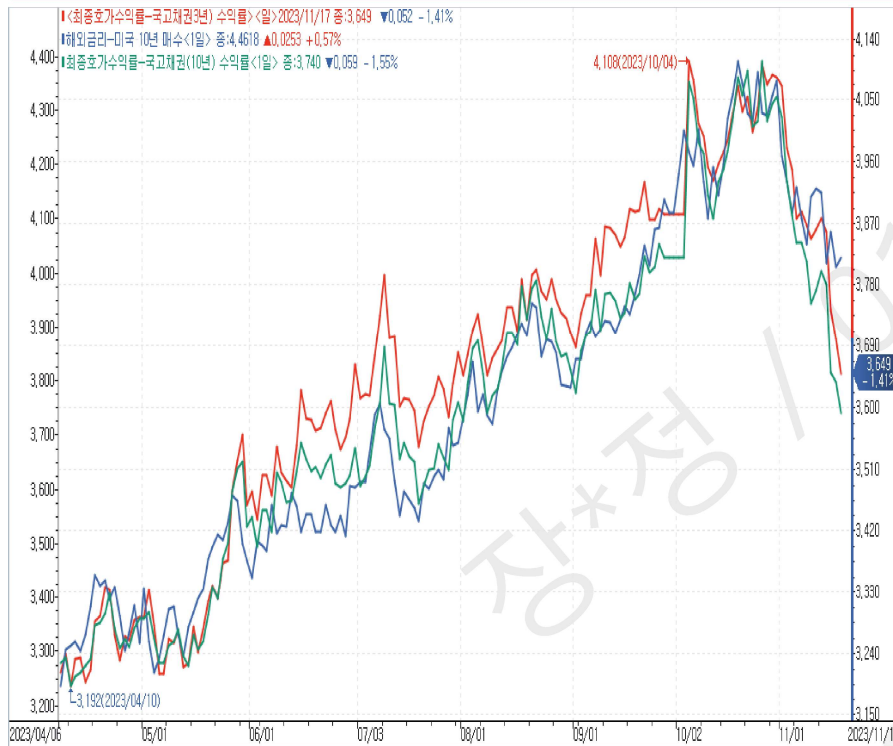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일본 생산자물가지수 둔화에 따른 BOJ의 금융완화 정책 지속 전망으로 엔화 약세 흐름 이어지며 출발. 이어, 미 CPI가 시장 컨센서스 하회하며 연준의 추가 긴축 종료 기대감 높아지자 달러 약세 영향 속 엔화 가치 반등
- 중반, 일본 3분기 GDP가 마이너스 기록하며 경기 침체 리스크 부각됨에 따라 엔화 재차 약세
- 후반 들어, 미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에 미 국채금리 하락하며 미일금리차 축소된 영향으로 달러 대비 강세 전환. 이어, BOJ 총재가 물가 목표 달성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종료 논의할 가능성 언급하며 강세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1.5	151.9	149.2	149.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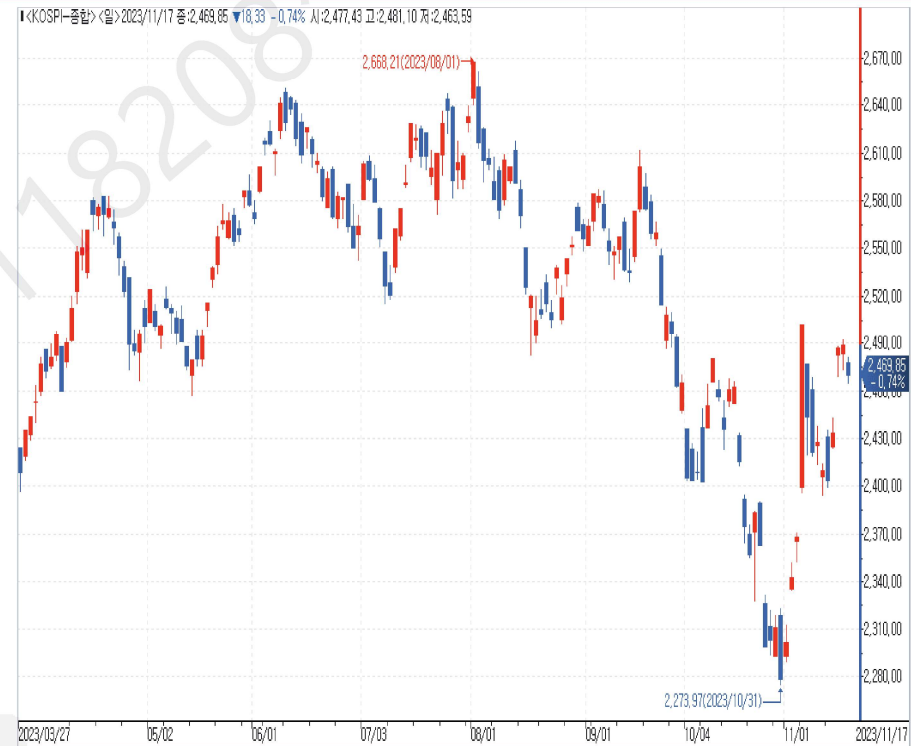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1/13~11/17)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국채 금리가 무디스의 미국 정부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따른 오름세를 반영한 가운데 국고채 10년물 입찰 등으로 소화하며 상승 출발. 이어 미국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서도 둔화 가능성을 반영하며 하락 전환 양상
- 중반 들어, 미국 10월 CPI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국내외 국채시장 강세 속에 급락세 시현
- 후반 들어, 환율 하락과 주가 상승 속 국고채 기관 매수 강화 등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지속한 양상 보인 후, 주 후반 미 국채 금리가 국제 유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을 반영하며 하락한 영향 등에 국고채 금리 동조 양상 나타나며 추가 하락 양상 속에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국 10월 소비자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과 예산안 협상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둔 관망세 속에 외국인 순매도 영향 등으로 소폭 하락 출발. 이어 뉴욕증시의 테슬라 급등 등에 따른 2차 전지 업종 강세 등으로 1% 넘게 반등 양상 시현
- 중반, 미국 10월 CPI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감소폭을 늘림에 따른 연준에 대한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 확대 등으로 큰 폭 상승세 지속
- 후반 들어, 뚜렷한 약재 등의 변동성 요인 제한된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와 미-중 정상회담 등의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 외국인 현선물 동시 매수세 등으로 소폭 상승세 지속. 주 후반, 미 국채 금리 하락 영향에도 최근 상승에 대한 되돌림 성격 나타나며 소폭 하락 전환하며 마감